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115장 수난 기약 다다르니)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오 26,14-27,66)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오 26,14-27,66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4/13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설마, 그 다음에는 그래? 그리고 세 번째쯤에는 더 이상 의문을 달지도 않고 사실로 인식해 버린다.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몇 사람의 작당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다.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 이런 모진 고난과 수난을 겪으셨을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헤로데? 빌라도?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모습이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더 중요한 역할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군중들이었다. 예수님께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 불과 얼마 전까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마태21,9)라며 주님께 찬미를 드리던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기적과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구름같이 그분을 따르겠다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름난 죄수 바라빠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나온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거기에 분명한 의식과 판단 없이 사람들에게 쓸려가는 군중 심리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몇몇 사람들과, 그들의 말에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의 간접적인 동의로 인해 지상의 삶을 비참하게 마치신다. 예수님의 인간적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또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든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 다양한 모습이 아닌 단편적이고 좁은 이야기에 쉽게 동의하고 그 말에 더 살을 붙여 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싶다.

쉽게 한 작은 말과 행동이 모여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경솔함도, 부주의함도 같이 매달아 끊을 수 있기를 청해야겠다.

(수원교구 4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와 자선, 금육 그리고 판공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며 다가올 부활 축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푸는 성경퀴즈’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하권 **1-5**장

◈ 성서문제

1.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애도하며 지은 애가의 제목은 무엇이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18)
   제목 :
   기록된곳 :

2. 아사엘은 죽은 후 어디에 묻혔습니까? (2,32)

3. 다윗이 낳은 아들 여섯명의 이름을 쓰시오. (3,2-6)

4. 다윗은 몇 살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까? (5,4)

5. 5장 10절에서 12절의 성경말씀을 옮겨 적으시오.

◈ 전례이야기 ; 성주간의 전례와 의미

성주간은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시기로 주님 수난 성지주일부터 예수부활 대축일 성야미사 전까지를 말한다. 성지(聖枝)는 예수께 대한 존경, 수난에서의 승리를 상징한다. 성주간 동안 행하는 전례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성사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세주의 신비가 성사를 통해 현존하는 것이다.

성월요일은 예수 죽음을 예고하고

성화요일은 제자들의 배반을

성수요일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예고한다.

성목요일은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함으로서 사순 기간이 끝나고 예수 수난에 대한 고통을 묵상하고 참회하기 위해 본 제대를 벗기고 십자가를 가린다. 성체는 수난감실로 옮겨지며 신자들은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며 성체조배를 하게 된다.

성금요일은 1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으며 단식과 금육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신비에 깊이 참여하는 날이다.

성토요일은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하며 밤에는 성대한 부활성야 미사가 거행 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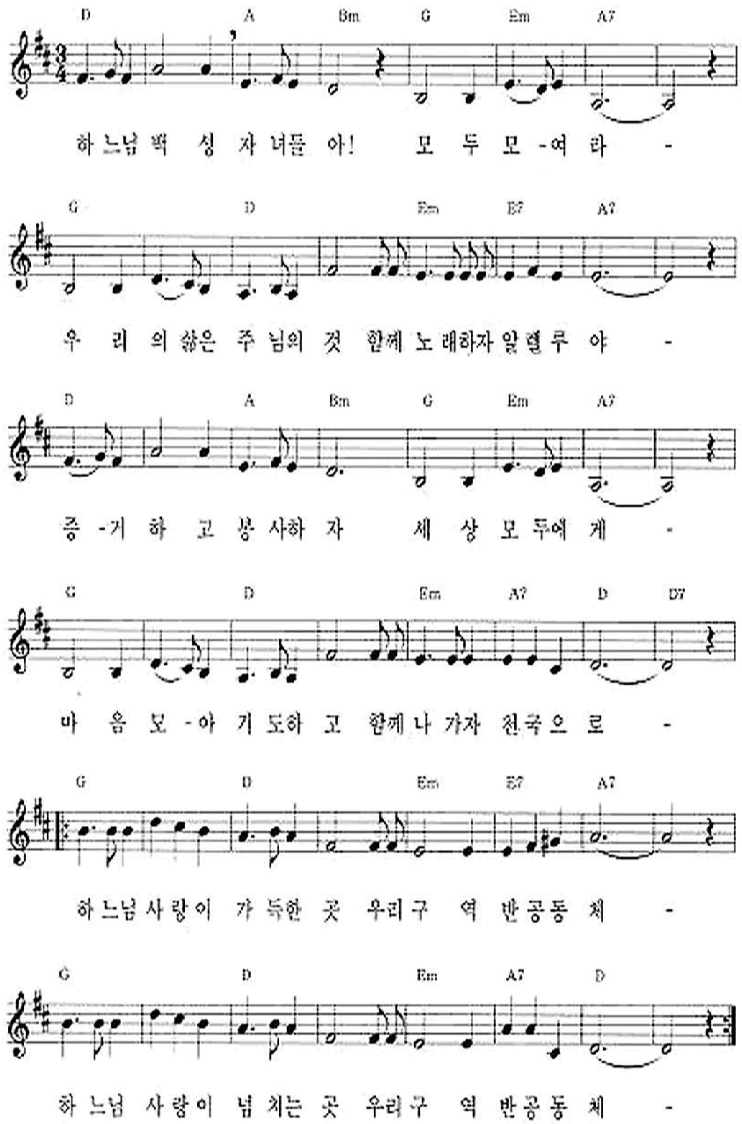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